

# 군산에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 정부 고용위기지역 재정 지원 신설에 따라 도 건의사항 반영... 도 본청 1조240억원 확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시에 보통교부세가 추가 지원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재정 지원 신설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산업 위기로 인해 경제위기가 심각한 군산시에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북도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것으로써 군산시의 경우 2019년 보통교부세는 3,695억원으로 '18년 2,865억원 대비 830억원, 29.0%가 증가해 시군 평균증가율(12.6%) 보다 16.4%p가 더 증가했다.

이는 자치단체 인구수에 동종 자치

단체 고용부문의 1인당 소요재원을 곱하여 산출되는 고용위기지역 특별 지원(약 139억원) 해택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성장촉진지역의 지역균형수요 반영비율 상향(10%→20%)건으로 '18년 151억원 대비 222억원 증가된 373억원이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되어 정읍시 등 도내 10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부족분을 산정하여 교부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의 경우 지방재정의 주요한 재원으로서 그동안 도에서는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18일 도의회 정례회에서 군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혁신방안을 촉구

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 전북재정포럼 및 지방교부세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도출된 교부세 산정제도개선 사항을 지방재정발전 세미나, 자치분권현장 간담회, 전국 교부세담당관 회의 등에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이로써 전북도 본청의 경우 1조240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해 전년대비 1,383억원(15.6%)이 증가하여 최초로 1조원 규모를 넘어섰으며, 시군의 경우 3조 8,307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4,293억원(12.6%)이 증가했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 "보통교부세가 지방재정의 주요한 재원인 만큼 앞으로도 전북도에 유리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적용시켜 나가면서, 행사축제성 경비 및 지방보조금 절감, 세외수입 확충 등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교부세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보통교부세 규모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신년 간담회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의 신년 기자 간담회가 3일 전북 전주시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총회의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성주 이사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전북도, 올 아동양육여건 개선·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 부모의 경제적 수준 무관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등

전북도는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새롭게 개선되는 정책을 3일 발표했다. 먼저, 만 3세에서 만 12세 이하 자녀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정부 지원 시간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2인 이상이면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나 1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대상연령 역시 현재 만 5세 이하에서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개월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일시·긴급돌봄에 대응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대폭 확대한다. 도내 2개소만 운영하던

다함께 돌봄센터를 2019년에는 14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공동육아나눔터도 4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양육비가 자녀 1명당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지원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고등학생 자녀까지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는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다. 전북도는 지속적으로 아동양육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전북 '대한민국 대표씨수소' 또 배출

### '천년전북 2호' 국가 보증 씨수소 선발 향후 12만 스트로정도 정액 생산 계획 전북도내 한우농가 소득향상 '가속도' 도 "전북 한우 브랜드 가치 높여나갈 것"

축하고, 씨수소 후보군을 육성해 왔다.

특히 축산시험장이 보유하고 있는 암소의 유전능력이 우수해 기 선발된 보증씨수소 외에 2016년 하반기에 후보씨수소 4두가 후대검증 중에 있어, 향후에도 보증씨수소가 지속적으로 배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산시험장은 배출한 국가 보증씨수소의 생산 정액 50%에 대해 우선 구매권이 있어 이를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축산시험장은 도와 시·군 한우협회와 정액공급 방안에 대해 협의하여 '천년전북 2호'의 정액을 도내 한우농가에 '천년전북 1호'의 정액과 함께 공급할 예정이다.

김용수 축산시험장장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송장치 및 후보씨수소 관리로 보증씨수소를 지속적으로 배출하여 농가 소득 향상은 물론 전북 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축산개발 및 축산기술 개발 등 축산업 발전에 힘써 도내 축산농가와 함께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 한우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증씨수소로 또 인정받아 전북 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였다.

전북도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장장 김용수)이 생산한 한우 '천년전북 2호(KPN1254)'가 '천년전북 1호(KPN1222)'에 이어 국가 보증씨수소로 선발됨에 따라 우량종자 보급이 확대되어 도내 한우농가의 소득향상에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지난 12월 26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열린 가축개발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는 총 26두의 후보씨수소 중 13두를 보증씨수소로 선발했다. 이로써 전체 보증씨수소는 126두가 됐다.

일명 '한우 정자왕'으로 불리는 보증씨수소는 전국 암소에게 정액을 공급하게 된다. 4년여에 걸친 까다

로운 검정절차를 통해 자손을 평가, 유전적 우수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보증씨수소로 선발될 수 있다. '천년전북 2호'는 보증씨수소 선발 능력이 아주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고, 향후 12만 스트로정도 정액을 생산할 계획이다.

'천년전북 2호'는 우리나라 전체 보증 씨수소 126두 중 11두( '천년전북 1호'는 17두)이며, '천년전북 2호' 자손의 경우 도축한 가축 무게를 가리키는 도체중이 보증 씨수소 평균보다 약 11kg가 더 나갈 것으로 예측되어 한우농가의 소득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축산시험장이 2014년 9월 김제시 공덕면에서 진안군 성수면으로 이전하면서 후보씨수소 선발에 필요한 수송장치 당대검정 시설을 구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